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로체시스템즈(071280)

반도체

요약
기업현황
시장동향
기술분석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NICE평가정보(주)

작성자

한슬비 전문연구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4-682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로체시스템즈(071280)

FPD 및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

기업정보(2021/01/01 기준)

대표자	박기환
설립일자	1997년 10월 28일
상장일자	2003년 11월 14일
기업규모	중견기업
업종분류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주요제품	LCD, 반도체 제조용 이송장비

■ 국제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FPD 및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

로체시스템즈(이하 동사)는 FPD(Flat Panel Display) 및 반도체 제조장비의 개발/생산/판매 업체로서, 싱가포르, 일본, 베트남 등에 위치하는 관계회사와 더불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동사의 주요 제품으로는 Laser GCM(Glass Cutting Machine), LCD Glass Indexer, 300mm 반도체 웨이퍼용 이송장치(EFEM, Equipment of Front End Module) 등이 있으며, 2017년 이후 매출이 회복세에 있어 2020년에는 1,802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 바 있다.

■ 기술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매출 시현

동사는 1997년 설립 이래로 부설기술연구소의 연구인력을 통해 주도적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반도체연구조합의 주관 아래 32nm/300mm급 반도체 후공정용 웨이퍼가공장비에 관한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또한, 최근 웨이퍼의 반송을 행하는 기관 반송 장치 및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기관을 벤딩하기 위한 벤딩로봇에 관한 특허를 취득하여 지속적인 기술개발에 투자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 세계 최초 비접촉 Laser GCM의 Full Cutting 양산기술 개발

동사는 레이저에 의해 비접촉으로 커팅이 가능한 Laser GCM을 개발하였으며, FPD(Flat Panel Display, 평면디스플레이)의 제조 공정에 장비를 적용하고 있다.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통해 복판유리, 초박판유리, 강화유리,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절단 시 유리 분말(Chip, Particle)이 발생하지 않는 클린 컷(Clean Cut)이 가능하여 청정 환경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OLED 양산라인에 적용 가능한 바, 향후 동사 성장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세정보(2021/09/03 기준)

현재가(원)	5,49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840
발행주식수	15,296,603
52주 최고가(원)	7,290
52주 최저가(원)	4,760
외국인지분율	41.16%
주요주주	Rorze Int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8	740	(78.0)	(10)	(1.4)	(14)	(1.8)	(2.1)	(1.5)	46.4	(89)	4,329	N/A	0.7
2019	798	7.8	43	5.3	12	1.5	1.8	1.1	83.6	78	4,383	68.9	1.2
2020	1,802	125.9	93	5.1	84	4.6	12.1	7.0	61.4	548	4,921	11.8	1.3

기업경쟁력

디스플레이/반도체 제조장비

■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분야

-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 등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으며, LCD 이송장비 및 커팅 장비를 주로 생산하여 공급함

■ 반도체 제조장비 분야

- 웨이퍼 이송, 적재 장비 제조
- Thin Wafer 취급 기술 개발

핵심경쟁력

■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 해외 업체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기술을 차별화함

■ 모듈 장비 및 이송장비 안정화

- 세대별 국산화 장비 개발 및 공급을 통해 국내 반도체 회사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매출 발생

■ Laser GCM 기술개발

- 비접촉 LCD 커팅이 가능한 기술 개발
- OLED 공정 및 소재업체에 적용

핵심기술 및 취급 품목

핵심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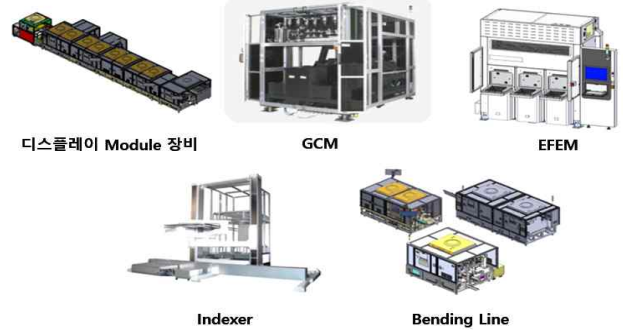
■ 기술 개발

- 다양한 Marking, Cutting, Engraving, Drilling을 위한 우수한 Laser 공정 기술 보유

■ 통합적인 품질관리체계 구축

- 기술개발, 성능향상, 시험평가 등 요구사항에 맞는 체계적인 통합 품질관리 시스템 적용

주력 제품



ESG 현황

Environment

항목	현황
환경 정보 공개	■
환경 경영 조직 설치	■
환경 교육 수준	□
환경 성과 평가체계 구축	■
온실가스 배출	■
에너지, 용수 사용	田
신재생 에너지	■

田: 양호 ■: 미흡 □: 확인불가

Social

항목	현황
인권보호 정책 보유	田
여성/기간제 근로자 근무	田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田
공정거래/반부패 프로그램	□
소비자 안전 관련 인증	田
정보보호 안전 관련 인증	田
사회공헌 프로그램	田

田: 양호 ■: 미흡 □: 확인불가

Governance

항목	현황
주주의결권 행사 지원제도	田
중장기 배당정책 보유	田
이사회 내 사외이사 보유	田
대표·이사회 독립성	田
감사위원회 운영	■
감사 업무 교육 실시	田
지배구조 정보 공개	田

田: 양호 ■: 미흡 □: 확인불가

> 당사는 에너지, 용수사용 절감에 대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성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소비자 안전, 정보보호 안전과 관련된 인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됨.
 > 이사회 내 사외이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별도의 감사위원회는 운영하지 않으나, 감사 1인 및 지원조직을 통해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본 ESG현황은 나이스평가정보㈜가 분석대상 기업으로 입수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으로, 분석 시점 및 기업의 참여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I. 기업현황

FPD 및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

FPD 및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인 로체시스템즈는 이송장비, 모듈 장비를 중심으로 제품을 개발 공급하고 있으며, 장기간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품질·저가격의 혁신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 개요 및 사업 현황

동사는 FPD 및 반도체 제조장비 제작을 목적으로 1997년 10월 설립되었으며, 2003년 11월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동사는 FPD 및 반도체 제조장비를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이송장비 및 Laser GCM 장비 등을 개발 공급하고 있다. 동사의 국제적 네트워크로는 2021년 6월 기준 동사 지분을 40.14% 보유한 동사의 지배기업인 RORZE INTERNATIONAL(싱가폴) 및 RORZE INTERNATIONAL(싱가폴)의 지분 100%를 보유한 최상위 지배자이자 로봇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RORZE CORPORATION, JAPAN(일본)을 비롯하여, 동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종속회사 RORZE SYSTEMS VINA CO.,LTD(베트남)이 있다.

그림 1. 동사 글로벌 네트워크



*출처: 회사소개서(2021)

■ 연구개발 이력

동사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LCD Indexer, 300mm Wafer 이송시스템, Laser Cutting System, 32nm/300mm 급 반도체 후공정용 웨이퍼가공장비에 관한 개발을 진행하였다. 또한, 웨이퍼 수납용기와 공정장비 사이에서 웨이퍼의 반송을 행하는 기관 반송 장치에 관한 특허 및 연성인쇄회로기판을 구부러 디스플레이 패널의 배면으로 배치시키거나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기판을 벤딩하기 위한 벤딩로봇에 대한 특허를 추가로 등록하였다.

■ 보유기술 및 주요제품 현황

동사의 주요 제품은 크게 FPD 제조용 기계 및 반도체 제조장비로 구분되며, 특정고객을 대상으로 수주생산을 진행하고 있다. 즉, 수주받은 장비의 설계 방식에 따라 주문생산으로 장비를 생산하고 있으며, 고객의 생산물량과 생산공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생산설계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다. 동사는 LCD, 반도체장비 제조판매 법인인 RORZE CORP.(일본)과 기술도입계약을 통하여 습득한 LCD 및 반도체 생산장비에 관한 기술을 이용하여 LCD Cassette Station (Indexer), Wafer Cassette Station(EFEM), Buffer Station, Loadport 등을 개발, 생산하고 있다. 또한, 신규 사업의 확장을 위해 LCD 생산공정에 적용되는 Laser GCM을 개발하여 양산제품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기존의 다이아몬드 휠 방식의 절단기에 비해 극청정, 고강도, 고품질의 절단이 가능한 장점을 가진다.

표 1. 사업 부문별 매출실적 (단위: 백만 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반기
제조	FPD	33,601	65,784	3,696
	Module	-	59,553	13,820
	반도체	28,644	38,888	35,879
	Laser GCM	10,605	7,413	1,351
기타		6,930	5,842	3,450
합계		79,780	180,210	58,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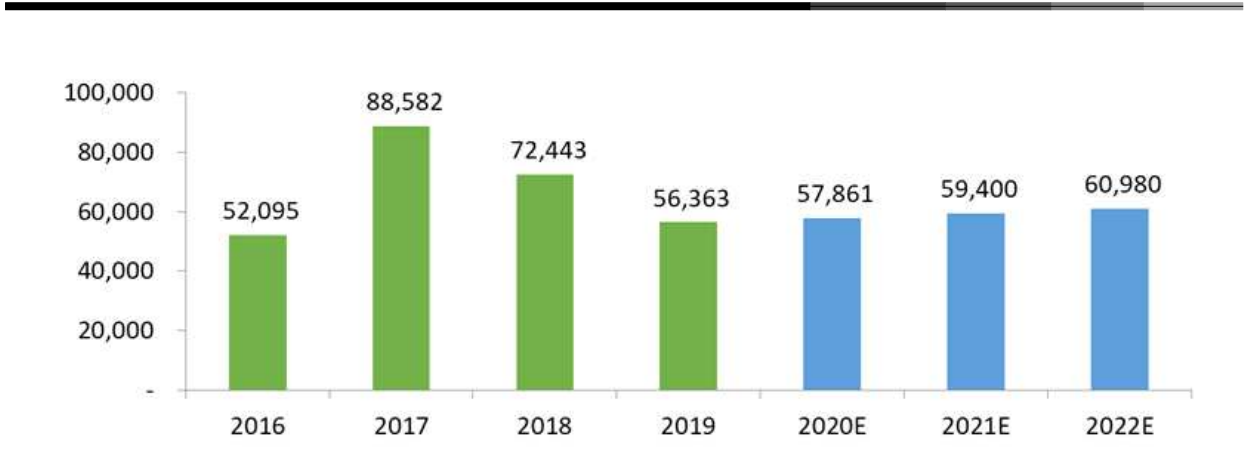
*출처: 반기보고서(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동사의 매출은 FPD, Module, 반도체, Laser GCM 및 유지보수 매출로 구분되며, FPD 및 반도체 제조장비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주요 고객사는 삼성디스플레이(주), 삼성전자(주), Samsung Display Vietnam, 코닝정밀소재와 (주)PSK Tech. 및 에스케이하이닉스(주)가 있다. 동사는 주거래 업체인 삼성전자(주), 삼성디스플레이(주)와 지속적인 협업관계를 유지하며, 신규 장비를 공동개발하여 기술협력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신규개발장비인 Laser GCM의 경우 관계회사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비중을 높이고 있다.

■ 시장 현황 및 특징

FPD 제조용 기계는 LCD, OLED 등의 FPD 패널을 제조하기 위한 장비로서, 공정, 부품, 소재, 가공 및 소프트웨어 기술 등이 종합적으로 집약되어 있다. 해당산업은 디스플레이 기술의 급격한 변화와 응용분야 확대로, 다양한 성능 및 기능을 만족시키기 위한 장비 개발이 중요하며, 가격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제조 원가를 줄이기 위한 기술혁신 역시 중요한 산업이다. 통계청에서 2021년 발표한 광업·제조업 조사에 따르면, 국내 FPD 제조용 기계 시장은 2017년과 2018년 큰 폭으로 증가한 후, 2019년에 잠시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나 전반적으로 매출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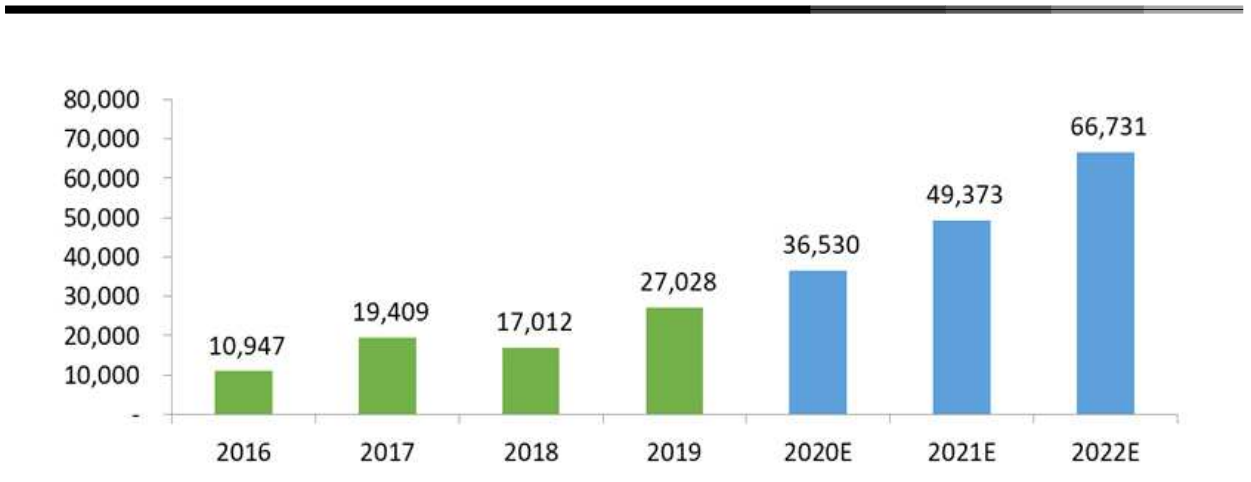
그림 2. FPD 제조용 기계 시장(단위: 억 원)



*출처: 통계청 광업·제조업 조사(2019),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반도체 장비 시장은 반도체 소자 시장의 10% 이상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후방 산업으로 반도체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때, 반도체 장비 산업의 성장진폭이 반도체 산업의 성장 진폭보다 큰 바, 반도체 시장의 경기보다 큰 폭으로 반도체 장비 산업이 변화한다. 즉, 반도체 장비산업은 경기변동에 따른 경영실적의 변동성이 반도체 산업은 물론 타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큰 산업이다. 통계청에서 2021년 발표한 광업·제조업 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장비 시장은 2016년 1조 947억 원에서 연평균 성장률 35.16%로 성장하여 2019년 2조 7,028억 원을 형성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 반도체 장비 시장(단위: 억 원)



*출처: 통계청 광업·제조업 조사(2019),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기술사업 분석

동사의 사업 분야는 크게 FPD 제조용 기계 및 반도체 제조장비로 구분된다. FPD 제조용 기계의 경우 디스플레이의 대형화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추세이며, 동사의 경우 대형 디스플레이를 이송하는 장비에 대한 시스템 제어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LCD 생산공정 중 원판 유리를 자르는 공정에 이용되는 Laser GCM 장비를 개발하고 양산하였으며, 기존의 커팅 방식과 비교하여 절단면이 정밀하고 미세커팅이 가능한 장점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반도체 장비와 관련하여 반도체 웨이퍼를 이송하기 위한 장치를 주요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로봇을 개발, 적용함으로써 자동화에 따른 비용절감을 달성하였다. 한편, 동사는 한국반도체연구조합 주관의 32nm/300mm급 반도체 후공정용 웨이퍼 가공장비 연구과제를 삼성전자, 에스케이하이닉스, 뉴파워프라즈마, 에이피티씨와 공동으로 개발하여 차세대 반도체 핵심장비의 기술을 확보하였다.

II. 재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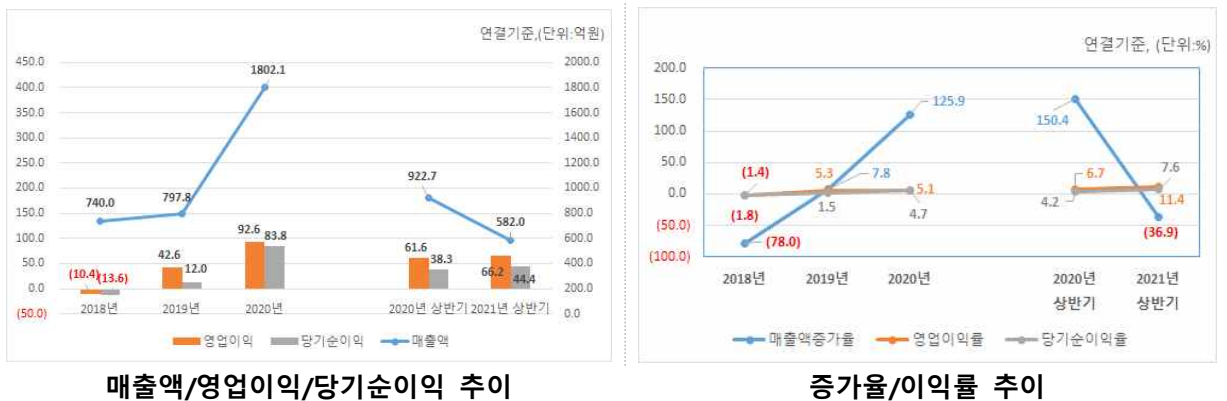
FPD 및 반도체 제조장비 위주로 호실적 기록

동사는 COVID-19 확산에도 불구하고 FPD 및 반도체 제조장비 위주로 큰 폭의 매출 성장을 나타내었고, 내부 효율성 개선을 통해 수익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 최근 공장 준공에 따른 투자 종료로 자금부담이 완화되어 재무상태 또한 전반적으로 호전되었다.

■ 팬데믹을 초월하는 매출 성장 달성

동사는 COVID-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2020년 연결기준 전방산업인 FPD와 OLED 사업 분야의 고객사 투자로 인해 전년 대비 125.9%로 크게 성장한 1,802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제품 품목별로 살펴보면 FPD가 658억 원(+211.5% YoY), Module 부문이 596억 원(+377.1% YoY)으로 외형 성장을 견인하였고, 반도체가 389억 원(+35.8% YoY)으로 실적을 뒷받침해 주었다. 내수 매출과 수출 매출은 각각 843억 원, 873억 원을 기록하며 약 50:50 비율을 유지하였다.

그림 4. 동사 연간 및 상반기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 반기보고서(2021)

■ 외형 확대에 힘입어 영업이익 큰 폭으로 증가

한편, 환율 및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동사의 원재료 매입단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외주용역비 증가 등으로 제조원가 부담이 가중되어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외형 확대에 힘입은 판매비 부담 완화로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5.1%를 유지하였고, 영업이익만 93억 원(+117.3% YoY)을 기록하여 양적 성장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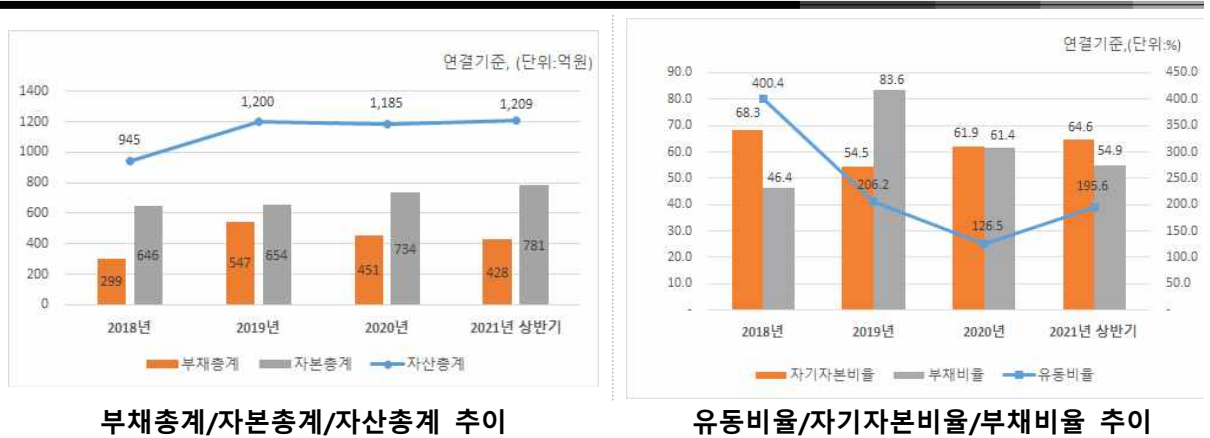
한편, 전기의 외화차입금 외화환산손실 제거와 파생상품거래이익 21억 원 발생에 따라 당기순이익은 84억 원(+598.3% YoY)을 기록하여 영업이익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매출액순이익률도 4.7%로 전년 대비 개선되었다.

■ 안정적 재무기반 바탕으로 실적 개선세 지속

2021년 상반기 매출은 반도체 부문의 호실적 지속에도 불구하고 FPD 부문의 실적 감소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36.9% 감소한 582억 원을 기록하였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해 전년 대비 개선된 매출액영업이익률 11.4%, 매출액순이익률 7.6%를 기록하였고, 영업이익 66억 원, 반기순이익 44억 원을 각각 기록하였다.

2021년 상반기 말 부채비율은 54.9%, 자기자본비율 64.6%, 차입금의존도 19.0% 등으로 부채 부담이 낮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였다. 또한 총자산 1,209억 원 중 현금성자산이 669억 원, 부채총계 428억 원, 차입금 246억 원으로, 보유 현금만으로도 금융부채를 포함한 채무 전액을 상환하기 충분한 수준인 바, 단기적 지급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유동비율은 2020년 말 126.5%까지 하락했다가 당반기 말 유동자산 확대에 의해 195.6%로 회복세를 나타내었다.

그림 5. 동사 연간 및 상반기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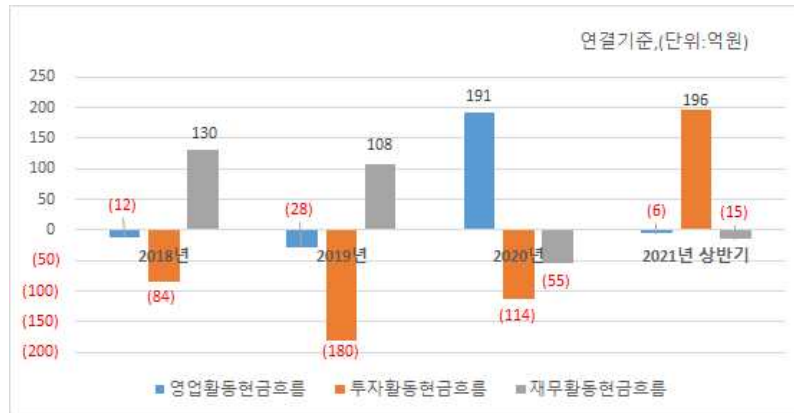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 반기보고서(2021)

■ 공장 준공에 따른 자금부담 완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18년 -12억 원, 2019년 -28억 원, 2020년 191억 원으로 수익성 개선과 더불어 정(+)의 상태로 전환되었다. 2021년 상반기 영업현금흐름의 경우 -6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매출채권 증가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및 부채의 변동에서 기인한 것으로 실질 현금창출능력은 개선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동사는 2018년부터 차입금을 조달하여 생산 Capacity 증설을 위한 신공장 증축에 투자해왔으며, 이로 인해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부(-)의 상태를, 재무활동 현금흐름은 정(+)의 상태를 보였다. 다만 2021년 1월 공장이 준공됨에 따라 당분간 투자활동으로 인한 자금 부담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반기 말 현금성자산은 331억 원으로 투자부동산 처분을 통한 현금 유입으로 인해 전기 말 155억 원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6. 동사 현금흐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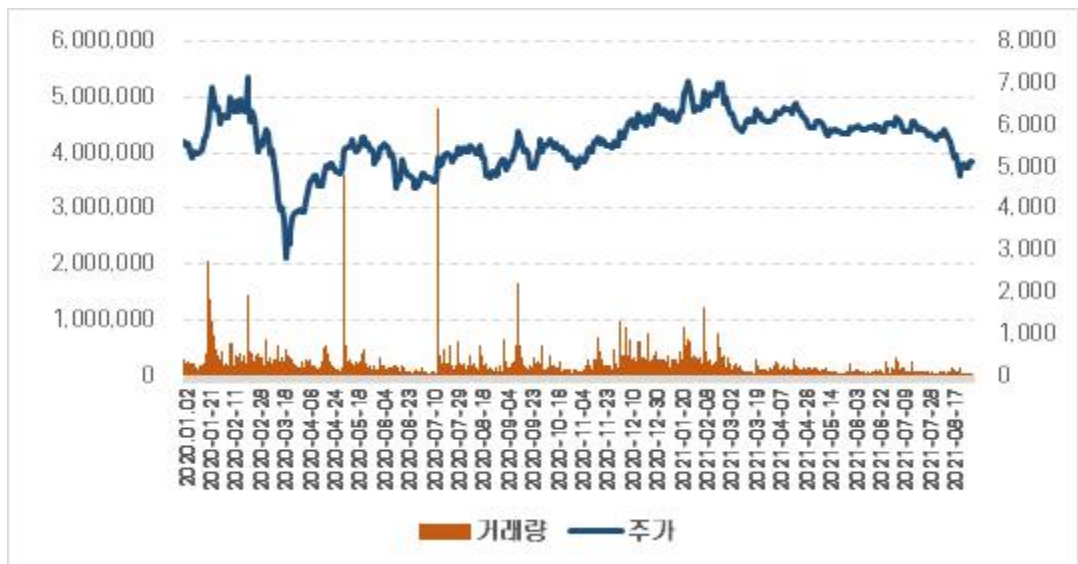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 반기보고서(2021)

■ 증권사 투자 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6개월 이내 발간 보고서 없음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출처: Kisvalue (2021.08.)

Ⅲ.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FPD 및 반도체 제조장비 기반의 안정적인 매출기반 확보 및 Laser GCM 기술 개발

FPD 및 반도체 제조장비 중 이송장비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지속 확보하며 핵심 플레이어로서 역할하며, Laser GCM 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장비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더불어 비재무적 지표인 ESG 활동에 참여하여 지속 가능한 경영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 주요 사업 이슈

COVID-19의 장기화로 인해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장비 기업의 공장 가동 및 장비 공급이 일부 주춤한 것으로 파악되나, 최근 국내외 수주가 몰리면서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라인 증설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른 여파로 당사는 자산운용 효율성 강화 및 현금유동성확보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용인시 처인구 소재의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하였고, 경영환경 개선 및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해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였다.

또한, 당사는 2020년에 전년 대비 125.88% 상승한 1,802억 원 매출액을 기록하여 매우 큰 폭으로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2018년 전방산업인 FPD 사업분야의 고객사 투자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 이후 지속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고, 신규 장비로 사업을 확장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디스플레이 Module 장비에서 발생한 매출이 2019년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공장 신설을 통해 생산량을 증대시킴으로써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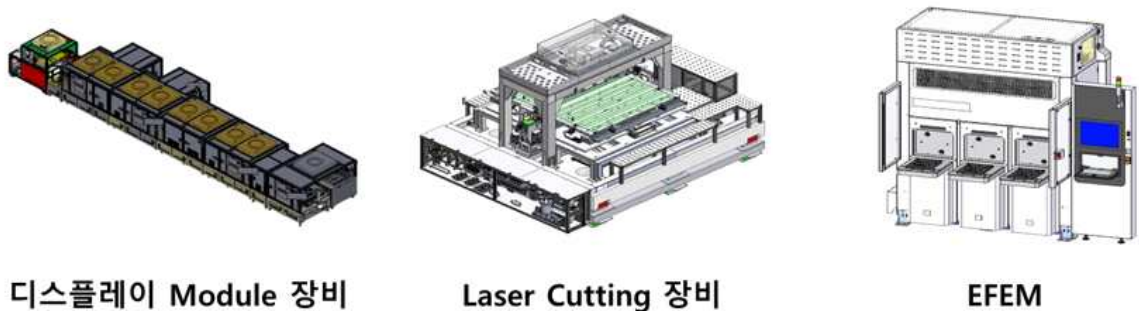
표 2. 주요제품 등의 현황 (단위: 백만 원, %)

사업부문	매출유형	구체적 용도	매출액	비율
제조	FPD	Glass Loading/Unloading(이송) 장치	65,784	36.50
	Module	Module 장비	59,553	33.05
	반도체	Wafer 생산 공정용 무진이송시스템	38,888	21.59
	GCM	Glass Cutting Machine	7,413	4.11
기타	상품	제어기기 제품군 외 (Controller, Driver, Motor)	3,971	2.20
	용역	A/S 및 고객대응 연구개발 수탁 LCD 및 반도체 장비의 개발과 유지보수 등	4,600	2.55
합계			180,210	100.00

*출처: 반기보고서(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한편, 동사는 최근에도 FPD 및 반도체 제조장비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허를 등록받고 있으며, 2021년 연성인쇄회로기판을 구부려 디스플레이 패널의 배면으로 배치시키거나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기판을 벤딩하기 위한 벤딩로봇에 대한 특허를 추가로 등록하였다. 또한, 삼성디스플레이(주)와 디스플레이 제품 생산 및 판매에 대한 74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삼성디스플레이의 경우 차세대 대형 디스플레이 기술로 퀴텀닷(QD) 디스플레이 TV를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여 협력사인 동사로부터 퀴텀닷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를 제공받았다.

그림 7. 동사 제품



*출처: 회사 홈페이지(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기술에 대한 향후 전망

최근 반도체의 고성능화 및 비용절감을 위해 고청정 환경인 진공 환경에서 높은 부상 정밀도를 갖는 생산 장비가 요구되며, 동 기술은 전방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한, 국내 제조 장비 산업은 반도체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직계열 구조를 형성하나 반도체 공정 난이도의 상승으로 인해 협력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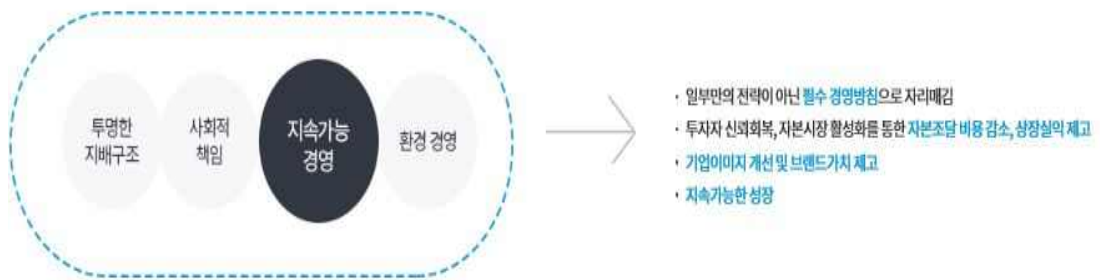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제조 장비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동사 역시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매출이 상승하고 있다. 동사는 전체인력의 약 40%가 연구인력으로 구성되어 고객이 요구하는 장비의 개발에 즉각적인 인력을 투입할 수 있으며, 무인자동화라인으로 구성되는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요구되는 장비의 운용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동사의 국제적 네트워크(일본 로체, 대만 로체 등)를 활용함으로써 선진기술을 확보함과 동시에 원가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였다.

한편, 동사의 부설기술연구소를 통해 8세대용 Indexer, 300mm Wafer 이송시스템(EFEM), Laser Beam을 이용한 Glass Cutting Machine 등의 장비가 개선, 개발되었으며, 삼성전자 등에 납품되었다. 또한, 동사는 공동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차세대 반도체 핵심 장비 기술을 확보하고, 전용공정을 구축할 예정이며, 반도체 이송 장비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 ESG 활동 현황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한다. ESG 평가는 기업엔 지속 가능 경영의 동기를 유발하고 투자자에게는 사회적 책임투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국내 ESG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서스틴베스트, QESG 가 있다.

그림 8. ESG



*출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홈페이지(2021)

산업통상자원부(2021)에 따르면, 현재 평가기관별 ESG 지표의 세부항목이 달라 같은 기업에 대해 등급 편차가 존재하여 평가대상인 기업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바, 국내 상황에 적합한 K-ESG 지표를 마련하여 표준화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2021)은 ESG 평가등급을 공개하고 있으며, 각 등급은 S, A+, A, B+, B, C, D 7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FPD 및 반도체 제조장비에 관한 일부 대기업, 코스닥 상장사의 등급이 제시되어 있다.

표 3.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주요 FPD 및 반도체 제조장비 ESG 등급 현황

기업명	기업코드	ESG 등급	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년도
에스에프에이	056190	B+	B	B+	B+	2020
미래컴퍼니	049950	B	D	B	B+	2020
원익IPS	240810	B	C	B+	B+	2020
케이씨텍	281820	B	B	B	B	2020
참엔지니어링	009310	B	B	B	B	2020

*출처: 한국기업지배구조원(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서스틴베스트(2021)의 등급은 AA, A, BB, B, C, D, E 7등급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자산 규모별 등급을 구분하고 있다. 당사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및 서스틴베스트에서 평가받은 이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4. 서스틴베스트의 주요 FPD 및 반도체 제조장비 ESG 등급 현황

기업명	기업코드	전체 등급	규모별 등급	자산 규모
원익IPS	240810	BB	BB	5천억원~2조원
케이씨텍	281820	B	A	5천억원 미만
참엔지니어링	009310	B	BB	5천억원~2조원

*출처: 서스틴베스트(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한편, 공개 자료 및 질문지를 통해 ESG 항목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확인하였다. 당사는 환경 정보 공개, 환경 경영 조직 설치, 환경 성과평가체계 구축 등이 파악되지 않으나,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인 ISO 14001:2004를 보유하여 모든 업무 및 작업을 수립된 절차에 따라 수행하고 있으며, 품질을 보증, 유지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용수사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5. 보유 인증 현황

인증명	유효기간	상태
 ISO14001:2004	2004-12-04~2022-12-02	유효

*출처: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동사의 2021년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기간제 근로자는 존재하지 않고, 여성 근로자는 11명으로 총 238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동사의 대표자는 국가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하는 포장인 산업포장을 수상하였으며, 정보보호인증 ISO 27001:2011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ISO 45001:2015를 보유하여 사업장 안전 및 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6. 여성/기간제 근로자 근무 현황

사업 부문	성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계
제조 부문 외	남	225	-	225
	여	13	-	13
합계		238	-	238

*출처: 반기보고서(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지배구조 부문은 정관에 의해 주주의 의결권을 1주마다 1개로 정하고 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를 실시한 이력이 있고 2021년 반기 보고서 기준으로 총 8명의 이사 중 2명의 사외이사를 보유하여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이 25%로 이사회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정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함을 정함으로써 이사 선정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계열회사 지분 표를 공시함으로써 지배구조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기획회계그룹에서 이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관심이 제고됨에 따라 투자자의 관점에서 투자 적합 기준이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요소가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노력의 측정지표로서 ESG 기준 충족이 요구된다.